



더위 피하느라 '메타세쿼이아 터널' 최고

때 이른 더위속에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을 찾는 피서 인파가 갈수록 늘고 있다. 담양군은 6월 들어 주말이나 휴일이면 하루 평균 50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밝혔다.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청백리 고장 장성, 청렴교육 2만명 다녀가

최근 3년간 131개 기관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 커

공직 비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장성군이 펼치는 청렴교육에 전국에서 2만명이 다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장성군은 2011년 9월부터 시작한 청렴문화 체험교육에 전국의 131개 기관에서 2만599명이 참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렴문화 체험교육은 조선 시대 대표적인 청백리인 아곡 박수량(1491~1554)과 지지당 송흥(1459~1547) 선생의 청백리 정신을 배우고 청렴유적지 탐방, 축령산 방문 등 교육과 관광을 접목한 체험프로그램이다.

1월에는 올바른 공직 가치관 확립에 기여했다는 공을 인정받아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 교육생들이 지역 상가를 이용하고 농특산물을 구입해 8억3000만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장성군은 관광으로 장성을 다시 찾는 교육생도 많아 청렴교육이 지역경

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성군은 청렴교육 유치단을 꾸려 전국 공공기관을 방문해 유치 활동을 벌였다. 친환경 재료로 만든 1식 4찬의 음식으로 구성된 청백리밥상을 선보여 교육생들에게 인기를 얻은 것도 도움이 됐다. 최근에는 박수량 백비전시실을 설

치했고 청렴교육의 전반적인 내용과 지금까지 운영성과 등을 담은 청렴교육 백서를 발간했다. 김양수 장성군수는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에서 교육생들이 장성을 찾을 수 있도록 청렴에 관련한 모든 자료를 한 데 모은 한국청렴문화원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서민 연료' LPG 가격 천차만별

20kg 기준 최대 1만2000원차... 시·군따라 차이 커

전남도내 일선 시군에서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최대 30%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서민의 연료'인 LPG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20kg 기준 최대 3만2000원에서 최대 4만4000원으로 1만2000원(37.5%)의 격차가 났다. 가장 싼 곳은 무안 일부 판매업소로 3만2000원에, 가장 비싼 곳은 나주

와 고흥, 해남 등에서 4만4000원에 공급되고 있다. 보통 4만2000원대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무안, 구례 등 일부 시군은 3만원대에 공급되고 있다. 또 같은 시군 지역에서도 가격 차이가 커 무안에서는 3만2000원~4만원, 구례는 3만5000원~3만7000원, 나주는 3만6000원~4만4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같은 지자체에서도 판매업소와 읍면지역에 따라 7000원~8000원씩 차

이가 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LPG 20kg 가격 산정 시 충전비(연료) 2만6000원선에 배달비, 운영비 등을 더하고 있다. 목포와 순천, 여수 등 시지역이나 대도시 주변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편리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나 변두리 미공급 지역과 농어촌 지역은 LPG가 주된 연료로 이용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LPG 충전소 145곳과 판매업소 395곳이 운영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수산단 닛소남해아그로 공장 준공

작물보호제 톨신엠 연간 5000t 생산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닛소화학 공장 부지 안에 작물보호제용 핵심 원재인 '톨신엠'을 생산하는 닛소남해아그로 공장이 11일 준공됐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이날 준공식에는 권오봉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김충석 여수시장, 박정채 여수시의회의장, 남해화학 강성국 사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011년 착공한 닛소남해아그로는 14개월 만에 공장 건설을 완료한 후 지난 4월까지 시험생산 등의 테스트를 거쳐 이날 준공식을 열었다. 닛소남해아그로는 합작회사로 남해화학(25%), 일본 니폰소다(65%)와 미쓰비시상사(10%) 등 3사가 468

억원을 투자해 설립했으며 작물보호제용 핵심 원재인 톨신엠을 생산하게 된다. 국내에서 톨신엠을 생산하는 것은 닛소남해아그로가 처음이다. 닛소남해아그로는 톨신엠을 연간 5000t 생산해 전량 수출할 계획이다. 히라시타 닛소남해아그로 사장은 "여수시는 물론 정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신규공장을 준공할 수 있었다"며 "지역기업으로서 한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발전에도 주춧돌이 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장흥군청 MTB 동호회 회원들이 투어 도중 제주박물관에 들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올여름 정남진서 멋진 추억 만드세요"

장흥군청 공무원, 제주도 자전거 타고 물축제 홍보

장흥군청 공무원 산악자전거(MTB) 동호회 22명은 제주도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제6회 정남진장흥 물축제' 홍보 활동을 벌였다. 12일 장흥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휴일을 반납한 채 갖은 날씨에도 자전거를 타고 제주도 관광지 일대 250km를 돌면서 관광객을 상대로 오는 7월 26일 개막하는 물축제를 알렸다. MTB 동호회 회원은 홍보 캠페인을 전담하면서 올여름 휴가를 정남진 장흥에서 연인, 가족과 함

께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또 뱃목타기, 우든보트 타기, 고무보트·동력선 타기, 수상 자전거 타기, 희망의 줄베 타기,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 등의 체험 행사와 생태·건강 프로그램 운영, 전문 공연단 공연, 연관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올여름 6회째를 맞는 정남진장흥 물축제는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장흥읍 탐진강변 일원에서 '물과 숲 휴(休)'라는 주제로 열린다. /장흥=김용호기자 yongho@

서부권

함평 해보산단에 6개기업 300억 투자

전남도·함평군, (주)오세마이 등과 투자협약 체결

함평 해보농공단지에 6개 기업이 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 전남도는 12일 오전 함평군청 소회의실에서 박준영 전남도차와 안병호 함평군수를 비롯해 ㈜오세마이 등 6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302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가 이뤄지면 326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협약 체결 기업들은 모두 함평 해보농공단에 투자한다. 해보농공단지는 총면적 7만4000평, 총사업비 190억원이 투입돼 농수축산식품 복합산업, 자동차·가전 부품업, 신소재 산업 등을 유치중이다. 올해 9월 준공 및 분양이 완료될 예정으로 서해안고속도로, 광주~무안간 고속도로와 인접한 교통의 요충

지로 입지여건이 좋다. 협약에 따라 ㈜오세마이(대표 김영진)는 103억원을 투자해 특화된 냉각 스프레이 코팅방법으로 나노 분말을 바탕으로 가전 및 자동차 부품인 파이프, 오일클러, 증발기, 히터코어 등을 생산한다. ㈜부경이엔지(대표 천창우)는 42억원을 투자해 전기모터와 다단의 감속기에 의한 기계식 권양기를 생산하고 ㈜전진(대표 김기연)은 26억원을

투자해 저수조에서 수압의 정도에 따라 회전력과 수압을 자동 조절하는 부스터 펌프를 제작한다. 49억원을 투자하는 매크로드(대표 현기환)는 자외선과 열화물 등 내성이 강한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원료로 잠초 성장 억제, 토양의 산성화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방초시트와 고정핀을 생산한다. ㈜동원스틸(대표 김석원)은 50억원을 투자해 선진화된 철근 가공기술과 철근 시공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

공하고 ㈜라운코퍼레이션(대표 이승우)은 32억원을 투자해 우리밀의 안정적 매출처 확보와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빙과류에 사용되는 콘피를 생산한다. 안병호 함평군수는 "이번 투자협약이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으로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평수기자 bung@kwangju.co.kr /함평=황은희기자 hwang@



목포 옥암동 '녹색한우 프라자' 문열어

전남 서부권 7개 축협의 공동상표인 '녹색한우'를 생산하는 사업법인인 12일 목포시 옥암동에 최고급 한우고기를 값싸게 살 수 있는 '녹색한우 프라자' 문을 열었다. 개장식에는 배웅태 전남도 행정부지사, 양영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농협축산경제 이기수 상무, 박중수 전남농협 본부장, 전남 관내 축협 조합장, 녹색한우 작목회 회원 농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녹색한우는 이번 한우프라자 개장으로 전국 한우 공동상표 최초로 생산에서 가공·판매까지 이어지는 직영화 체계를 갖추으로써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 등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발판을 다지게 됐다. 녹색한우프라자는 전체 면적 1539㎡에 3층 건물(사업비 40억원)로 1층

에 한우 전문판매장과 단체급식 가공장, 2층에 150석 규모의 한우전문 식당, 3층에 단체 연회장 등이 자리 잡았다. 녹색한우는 목포무안산안, 나주, 영암, 강진완도, 해남진도, 장성, 화순 등 7개 축협이 1200여 한우농가가 참여한 공동상표다. 연간 4800마리를 출하해 36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녹색한우프라자는 개장기념으로 한우고기 특별한 판매를 하고 있으며 한우 부산물 반값 판매, 요일에 따라 부위별 원가판매를 하고 있다. 이날 개장식에서는 녹색한우 참여 농가들이 직접 목장 전경 사진을 출품해 사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 '아름다운 목장 사진 공모' 수상작 전시회도 함께 열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진도관광은 아리랑버스 투어로"

郡, 15일부터 매주 토요일 목포역 출발

"진도아리랑 버스타우어 보배섬 진도스타일을 체험하세요" 진도군은 15일부터 목포역을 출발해 진도군 문화·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진도아리랑 버스타우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버스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출발하며 진도대교, 토요일속 공연, 진도개 테마파크, 운림산방을 거쳐 저녁 7시까지 다시 목포역으로 돌아온다. 버스는 가장 먼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13척의 군함으로 적군 133척을 무찌른 명랑대첩의 현장인 진도대교와 울돌목을 방문한다. 이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4종(강강술래, 남도들노래, 진도씻김굿, 다시래기)과 전남도 지정 문화재 4종(진도북놀이, 진도만가, 소포결군농악, 조도뫼베노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인 진도아리랑 등 수많은 민속을 한

자리에서 선보이는 토요일속공연 연장을 들린다. 특히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도개를 활용한 진도개 경주, 진도개 공연, 어질리티 등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진도개 테마파크와 국가지정 명승 제80호이며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곳 100선에 선정된 남화의 분기지 운림산방을 관광한다. 버스 투어 이용 요금은 어른 1만원, 초·중·고교생 8000원이며 6세 이하는 무료이다. 운영 정보 및 예약은 전화 (061-543-5676),나 홈페이지 (http://www.jindotour.or.kr)를 이용하면 된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매주 토요일 KTX 등을 이용해 진도를 찾으려는 관광객이 타깃"이라며 "버스를 이용하면 보배섬 진도의 진면목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탐스런 청매실 수확

전국 최대 규모인 해남군 산이면 보해마을농원에서 청매실 수확 작업이 한창이다. 보해농원은 이달말까지 매일 1000여명이 매실 수확에 나서 올해는 400t 가량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고지서,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에너지재단 심사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영암군 희망복지지원단 관계자는 "전기요금 미납으로 고통받는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영암, 단전위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

영암군이 단전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가정의 전기요금 지원에 적극 나선다. 12일 영암군에 따르면 한국에너지재단의 협조를 받아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7월 31일까지 전기요금

다. /영암=대성수기자 dss@